

- 요지:**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너희들이 모여 힘을 합쳐서 철시대인 이 세상에서 슬픔의 지붕을 뜯어내라. 아버지를 기억하는 자비로운 행위를 행하여라.
- 질문:** 자녀들은 불멸하는 지식의 보상을 받았는데도 자선의 계좌에 축적하지 못하고 일부는 도리어 그 계좌를 바닥내 버린다. 왜 이러는 것인가?
- 대답:**
- 1) 왜냐하면 그들이 자비로운 행위를 행하는 중간에 죄를 저지르기 때문이다. 비록 깨달은 영혼들이지만 나쁜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들은 죄를 짓는다. 그런 죄 때문에 이제껏 쌓아놓은 자선의 계좌가 끝난다.
 - 2) 만일 아버지에게 속한 영혼이 정욕이라는 악덕에 다친 나머지 아버지의 손을 놓으면 그 영혼은 예전보다도 도리어 더 나빠진다. 그런 자들은 가문의 이름에 막칠을 한다. 그들은 극심한 벌을 경험한다. 사트구루의 명예를 훼손하기 때문에 그들은 높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옴 산티. 영적인 아버지가 너희 영적인 자녀들과 마음의 대화를 나눈다. 너희 영혼들은 오직 우리 아버지만이 무한한 한 분의 아버지임을 이해한다. 너희 자녀들은 이것을 이미 이해했다. 목적지는 해방과 삶 속의 해방이다. 해방을 받으려면 기억의 순례가 절대 필수적이며, 삶 속의 해방에는 창조의 시작, 중간, 끝을 아는 것이 절대 필수적이다. 양쪽 모두 아주 쉽다. 84생으로 이루어진 세계의 사이클은 계속 돈다. 우리들의 84생의 사이클이 이제 끝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너희 자녀들의 지각에 남아 있어야만 된다. 우리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아직은 아무도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데, 왜냐하면 모든 영혼이 죄가 많기 때문이다. 죄 많은 영혼들은 해방이나 삶 속의 해방으로 들어갈 수 없다. 너희들은 그런 생각을 해야 한다. 원가를 하는 이들은 그 보상을 받고 행복하게 지낼 것이다. 너희는 남들도 역시 행복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남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영혼인 여러분은 사토프라단한 데서 타모프라단하게 변했고, 그래서 여러분은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설명해 줘야 한다. 그들은 심지어 “오 정화자여!”라고 소리쳐 부르기까지 한다. 너희 자녀들은 지금이 가장 상서로운 합류시대라는 것을 이해한다. 이것을 아주 잘 기억할 수 있는 이들도 일부 있는 반면에 나머지들은 기억하지 못한다. 그들은 되풀이해서 잊는다. 만일 너희가 합류시대를 기억한다면 행복의 수은주가 아주 높이 솟은 상태에서 지낸다. 너희들이 아버지를 기억하고 선생도 역시 기억하면 너희 행복의 도수가 높게 지속된다. 일부는 중간에 크나큰 장애들을 만나고, 나머지들은 사소한 장애들을 만난다. 어쨌든 모든 이가 장애를 만난다. 일부는 아주 높이 올라간 다음에 다시 아래로 떨어진다. 일부는 단계가 아주 좋아서 바바의 가슴까지 오르는데, 그러나 그들은 다시 추락하고 그들의 소득은 전부 끝난다. 바깥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자비로운 영혼이 되기 위해서 아주 많이 기부를 하고 많은 자선을 행한다. 그렇지만 자비로운 행위를 행하는 동안에 영혼들이 죄 많은 행위를 행하기 시작한다면, 그들은 죄 많은 영혼들이 된다. 너희의 자선 행위는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이다. 오직 기억을 하는 것에 의해서만, 영혼이 자비로운 영혼이 된다. 너희가 아버지를 잊고 누군가와 어울리며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그 다음 죄를 많이 범함으로써, 너희가 전부터 행해왔던 자선은 끝난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오늘 기부하고 자선을 행하고 센터를 열었는데, 만일 내일 돌아선다면 그는 그 전보다도 오히려 더 낮게 추락하는데, 왜냐하면 그가 죄를 짓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좌에 쌓이는 게 아니라 도리어 깨끗이 털어 버린다. 전에는 그들이 봉사를 아주 잘 했는데, 묻지도 말아라! 그러나 나중에는 그들이 아주 제대로 추락한다. 심지어 결혼도 하고 그 전보다도 더 나빠진다. 일단 죄를 저지르면 그 죄의 무게가 점점 늘어난다. 수익과 손실의 거래 내역이 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를 원하는 이들은 이해할 것이다. 가벼운 죄들도 있고, 아주 무거운 죄들도 있다.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최악의 죄는 정욕이다. 화가 두 번째이고, 탐욕은 그보다 약간 덜하며, 애착은 탐욕보다 조금 덜하다. 악덕에도 등수가 있다. 정욕에 패함으로써 수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은 손실을 겪는데, 그들이 사트구루의 명예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그런 영혼들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들은 (바바의) 가슴에서 내려온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속하고, 그 다음 아버지를 떠난다. 그것도 역시 그들의 행위에 달려 있다. 그들이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따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정욕이 그들을 가장 세게 강타한다. 이것이 주된 적이다. 너희들은 화난 사람의 허수아비를 만들어 불에 태운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아니다, 정욕이 많은 자를 허수아비 형상으로 만든다. 그것은 라반이다. 아버지가 말한다: 정욕을 정복함으로써 너희는 세계의 정복자들이 될 것이다. 너희는 완전히 패했었다. 그러니 승리하지 못하고 너희들은 패배한다. 그들은 아버지를 소리쳐 부른다: 오 정화자여, 오소서! 저 사람들이 크게 고통 받는 이유는 정욕 때문인데, 그 다음에 그들은 말한다: 바바, 제가 얼굴을 더럽혔습니다. 바바가 말한다: 너는 가문의 명예를 훼손한 자가 된다. 화나 애착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이 정욕에 달렸다. 그들은 소리쳐 부른다: 오 정화자여, 오소서! 아버지가 왔는데도 여전히 영혼은

계속해서 불순해지고 있으니,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현자와 성자들 등, 모든 이가 “오 정화자여, 오소서!”라고 소리쳐 부르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 물론, 신이 와서 새로운 세계를 세우리라는 것을 실제로 믿는 자들도 일부 있긴 하다. 그러나 그들이 사이클의 지속기간을 아주 길게 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암흑 속으로 떨어졌다. 지식과 무지가 있다. 아버지가 설명하는데, 신봉의 길에서 그들은 자신이 승배하는 분이 누구인지도 모른다. 그러니 그런 신봉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하든 하는 일마다 결실이 없다 (성공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기부를 하고 자선을 행함으로써 그 결실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직 일시적인 기간뿐이다. 까마귀의 뚱처럼 잠깐의 행복을 받는다. 산야시들도 역시 이 세상에서 무슨 행복을 받든지 그것은 까마귀 똥과 같으며, 나머지는 전부 다 슬픔이라고, 오직 슬픔 외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다. 아버지가 말한다: 나만 기억하여라, 그러면 너희의 슬픔이 모두 제거될 것이다. 그저 이 생각만 하여라: 내가 얼마나 바바를 기억해야 내 오래된 카르마의 잔고가 정리되고 새로운 계좌에 쌓일까? 누가 계좌에 많이 쌓는다는 말은 돈 등의 얘기가 아니다. 여기에서는 죄를 없애는 문제이다. 주된 측면은 순수해지는 것이다. 너희가 바바에게 그것에 관해서 편지를 쓰면, 여러 생의 죄가 정리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여러 생 동안에 쌓인 죄의 무게가 엄청나다. 그것들이 잘려나가지는 않을 테지만, 그러나 이번 생에 지은 죄들의 무게는 조금 가벼워질 수 있다. 하지만 노력을 무척 많이 해야만 그렇게 된다. 너희가 기억하며 더 많이 머물수록 죄의 무게가 더 가벼워질 것이다. 일부 자녀들은 노력을 많이 한다. 그들은 수백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준다. 그들은 84생의 사이클을 설명한다. 너희들은 여러 생의 거래내역이 뭔지를 안다. 그저 이렇게 생각해라: 지금 나에게 요가 파워가 얼마나 있으며, 나는 언제 태어날까? 황금시대의 처음일 것인가? 노력을 많이 하는 이들은 황금시대가 시작되는 때 태어날 것이다. 그런 영혼들은 숨겨져 있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 모두가 황금시대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일부는 마지막에 가서 뭔가 조금 차지할 것이다. 소득을 많이 버는 이들이 일찍 가는 이들이다. 소득을 덜 버는 자들은 나중에 가며, 그래서 너희가 아버지를 많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은 아주 쉽다. 바바를 아주 잘 기억하는 이들은 자기들이 새로운 세계에 아주 빨리 가리라는 것을 알기에, 대단히 많은 행복을 경험한다. 만일 너희가 왕이 되길 원한다면 백성들을 창조해야 한다. 백성들을 창조하지 않고서 어떻게 너희가 왕이 되겠느냐? 일부는 센터를 열고 그걸 통해서 많은 소득을 빈다. 혜택이 있는 경우에 그들은 심지어 센터를 둘이나 셋도 연다. 바바도 역시 계속해서 센터들을 연다. 뭔가를 하는 이들의 계좌가 만들어진다. 함께 모여서 힘을 합해 슬픔의 지붕을 걷어 내라. 모든 이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니, 너희 모두가 각자의 뜻을 받는다. 각자가 노력하는 정도만큼 높은 지위를 차지한다. 그들은 또한 대단히 많은 행복도 경험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드높여졌는지 눈에 보인다. 일부는 계속해서 봉사를 잘한다. 마마는 봉사를 아주 잘하는 귀감이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마마는 엄청난 혜택을 경험했다. 봉사가 주된 것이다. 요가도 역시 봉사이다. 기억하며 머무는 방법에 대해서 너희들은 계속 지시를 받는다. 바바는 요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역시 설명해왔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계속해서 더 많이 설명할 것이다. 나날이 발전이 일어날 것이다. 새로운 요점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그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쉽지도 않다. 계속 봉사하는 이들은 요점들을 아주 빨리 파악한다. 항상 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의 지각에는 아무 것도 자리를 잡지 않는다. 그들은 계속해서 “빈디, 빈디 (점, 점)”라고 말하지만, 너희가 어떻게 점을 기억하느냐? 점 하나를 볼 수 있느냐? 그것은 아주 쉽다. 너희는 앞에 점 하나를 놓고서 바바를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이해해야 할 문제이다. 영혼은 아주 작은 점이다. 다른 이는 어느 누구도 영혼의 이름, 형태, 나라, 또는 때를 너희에게 얘기해 줄 수 없다. 그들은 신의 이름, 형태, 나라, 그리고 시기가 언제냐고 묻는다. 몰지각한 인간들은 영혼도 이해하지 못하고 지고의 영혼도 이해하지 못한다. 여기에도 역시,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일부 있다. 그들은 계속해서 “바바, 바바”라고 한다. 그들은 지식을 공부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계속 먹기만 한다. 산야시들에게도 역시 아무 것도 안 하며 먹기만 하는 추종자들이 있다. 최소한 그들은 버림을 행한 자가 되었고, 스스로를 죄에서 해방시켰다!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산야시들의 종교는 별개이다. 지식은 너희 자녀들을 위한 것이다. 너희가 순수했었으며 지금은 불순해졌다는 것을 바바가 설명한다. 너희들은 84생의 사이클을 돌아온 이들이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없다. 신봉은 지식과는 완전히 별개이다; 밤과 낮만큼 큰 차이가 난다. 너희들이 노력해서 락수미와 나라양처럼 되어야 하고, 그래서 슈리마트를 완전하게 따라야 한다는 것을 너희는 안다. 이것은 노력을 요한다. 그렇지만 저런 질병 등은 계속해서 올 것이다. 그 죄는 마지막까지 남을 것이고, 마지막에는 그것이 사라지고 슬픔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는 슬픔의 제거자이며 행복의 공여자라고 알려져 있다. 그들은 말한다: 오 해방자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저희를 모든 슬픔에서 해방시켜 주소서! 인간들은 슬픔 때 신을 기억한다. 슬픔 때는 모든 이가 말한다: 오 신이여! 오 라마여! 그들은 신을 기억하는데, 누가 신이냐? 아무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그저 “신, 아버지를 기억하세요! 또는 쿠다(신)를 기억하세요!”라고 말한다. 너희들은 그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아주 잘 이해한다. “너희 자신을 영혼이라 여기며 나를 기억하여라”라고 우리를 가르치는 분이 아버지이다. 신봉의 길에서는 “너희 자신을 영혼이라 여기며, 아버지를 기억하여라”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아니다. 아주 다양하고 많은 신봉이 있지만, 지식은 단 하나뿐이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봉을 행했으니 신을 만나리라고 생각한다. 신봉이 언제 시작되고, 누가 신봉을 제일 많이 행하느냐? 아무도 이것을

모른다. 우리가 아직도 4만년 동안 더 신봉을 계속 행하겠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신봉이 계속되겠느냐? 얼마의 기간 동안 신봉이 계속되고, 또 얼마의 기간 동안 지식이 계속되는지 이제 너희들은 이해한다. 신봉자들은 이런 것들을 모른다. 너희들은 그들에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전시회들을 많이 연다. 전시회에서는 수백만 중에서 겨우 한 손으로 꼽을 수만큼만 나온다. 시간이 더 흐르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온다. 순수하게 지내는 진정한 너희 브라민들은 아주 소수이며, 규칙적인 이들만이 여기에 와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브라민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정확히 계산할 수가 없는데, 가짜인 자들도 있기 때문이다. 브라민(승려)이 하는 일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다. 바라도 역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준다. 너희들도 역시 이야기를 들려줘야만 한다. 아버지가 그러하듯이 자녀들도 역시 그러하다. 너희 자녀들의 의무는 기타를 말해주는 것인데, 모든 이가 다 이것을 하고 있지는 않다. 지식의 책은 단 하나 기타뿐이며, 기타가 모든 경전들 중 보석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전부 포함되어 있다. 기타는 어머니이며 아버지이다. 와서 모든 이에게 구원을 베푸는 분은 아버지이다. 또한 쉬브 바바의 탄생이 다이아몬드 같으며, 다른 모든 이의 출생은 빈 조개껍데기처럼 가치가 없다는 것도 너희가 글로 쓸 수 있다. 모든 이가 아버지를 기억한다. 철시대의 인간들은 황금시대의 신인들을 숭배한다. 누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느냐? 오직 한 아버지뿐이다. 그러나 이것을 아주 잘 이해하는 이들만이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도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바바가 말한다: 건설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자녀들은 파괴를 일으키는구나. 마하라티들이 일부 있고, 일부는 기병이며, 일부는 보병들이다. 보병인 자들은 무엇을 하느냐? 그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공부한 이들을 위해서 일해야 할 것이다. 남들 앞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남들을 가르치지도 않는 자들을 너희가 뭐라고 부르겠느냐? 타조라고 부를 것이다! 앗차.

가장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오랫동안 잊었다가 이제 다시 찾은 자녀들에게,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밥마다가 사랑과 기억과 아침인사를 보낸다.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자녀들에게 나마스테.

실천 요지:

1. 아버지는 하나의 점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버지를 기억하여라. “빈디 빈디(점)”라고 말하며 혼동되지 마라. 봉사에 참여하며 지내라.
2. 참된 기타를 듣고 그것을 남들에게 들려줘라. 참된 브라민이 되려면 순수하게 지내고 반드시 규칙적으로 공부하여라.

축복:

아버지와 대등해져서 너희의 고결한 행위를 거울삼아 아버지 브라마의 행위들을 드러내라.
브라민 영혼인 너희는 각자 모든 행위에서 아버지 브라마의 거울이다.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며 모든 행위를 행하는 자녀들에게는 말하는 것, 움직이는 것, 일어나는 것, 앉아 있는 것이 모두 아버지 브라마와 같을 것이다. 그들의 모든 행위는 축복 받을 가치가 있을 것이고 그들의 입에서는 언제나 축복이 나오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평범한 행위에서도 특별함이 눈에 보일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 자격증을 차지하면 그때는 아버지와 대등하다고 불릴 것이다.

슬로건:

아비약트 단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외향적이 되기를 버리고 내향적이 되어 고독 속에 머물러 있어라.

*** 음 산티 O M S H A N T I ***